



소개

리베르소 트리뷰트 노란티엠 ‘에나멜’

별이 빛나는 밤하늘에 둘러싸인
디지털 타임 디스플레이를 통한 재해석

주요 특징:

- **도전적인 무브먼트:** 243 개의 부품과 42 시간 파워 리저브를 갖춘 칼리버 826
- **뛰어난 장인 정신:** 70 개의 핑크 골드 별이 반짝이는 나이트 블루 컬러의 에나멜 하늘, 10 시간의 작업으로 완성
- **리미티드 에디션:** 90 피스

예거 르쿨트르는 리베르소 탄생 90 주년을 맞이하여 2021 년에 리베르소 트리뷰트 노란티엠 ‘에나멜’을 출시한 데 이어, 우아한 회색 선레이 다이얼과 뒷면의 장식 에나멜이 특징인 18K 핑크 골드(750/1000) 소재의 새로운 버전을 선보입니다. 9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되는 새로운 모델은 시간을 초월한 디자인과 뛰어난 장인 정신을 결합한 기술 혁신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랑 메종의 열정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폴로 경기장에서 파인 워치메이킹까지 – 아이콘의 진화

1931 년에 출시된 리베르소는 당시 유행을 선도했던 ‘스포츠를 즐기는 신사(sporting gentleman)’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1858-1947 년 당시 영국령 인도에 주둔하던 장교들은 격렬한 폴로 경기를 하는 동안에도 파손되지 않는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시계를 제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형태와 기능을 완벽하게 통합한 리베르소가 탄생했습니다. 각계각층의 트렌드세터들로부터 즉각적인 호응을 얻었던 리베르소는 곧 남성과 여성을 위한 새로운 버전이 등장하면서 본래의 스포츠용 목적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리베르소의 아이코닉한 양면 케이스(특히



CH159982)와 독특한 아르데코 라인은 현재까지 변함없이 유지하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치가 되었습니다.

리베르소는 스타일과 기능의 완벽한 결합으로 탄생했습니다. 아르데코 미학에 기반을 둔 이 모델은 그랑 메종의 전문성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리베르소의 칼리버는 생산 초기부터 직사각형 케이스의 곡선을 따라 디자인되었습니다. 이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극대화하여 칼리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독창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1931 년, 이 모델은 파인 위치메이킹의 혁명으로 여겨졌습니다. 독특한 직사각형 케이스에는 그 형태에 맞춰 디자인된 칼리버를 장착했으며, 충격과 습기, 세월의 흐름으로부터 칼리버를 보호하기 위해 전용 케이싱 링에 고정했습니다.

매뉴팩처의 이러한 기술적 도전은 1990 년대 초, 예거 르쿨트르가 리베르소에 하이 컴플리케이션을 도입하면서 완전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991 년, 출시 60 주년을 맞아 선보인 리베르소 수아상티엠은 파워 리저브와 날짜 디스플레이 비롯하여 처음으로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백을 적용해 내부의 기계식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10 년 동안 5 가지 뛰어난 클래식 컴플리케이션이 새롭게 재해석되었고, 직사각형 리베르소 케이스에 맞춰 무브먼트 구조와 시각적 디스플레이가 재구성되었습니다. 2001 년에는 셉탕티엠을 출시하며 리베르소 역사의 또 다른 10 년을 써 내려갔습니다. 2021 년, 리베르소 탄생 90 주년을 맞이한 예거 르쿨트르는 리베르소 트리뷰트 노난티엠을 출시했습니다. 리베르소에 신선하고 흥미로운 스타일을 도입한 이 모델은 위치메이킹에서 친숙한 일부 컴플리케이션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적 표현으로 선보였습니다.

앞면 다이얼의 새로운 컬러, 뒷면을 더욱 강조해주는 에나멜과 래커

아름다움과 뛰어난 장인 정신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로 탄생한 리베르소 트리뷰트 노난티엠 ‘에나멜’의 새로운 모델은 우아한 그레이 선레이 브러싱 다이얼과 화려하게 장식된 뒷면이 특징입니다. 리베르소 트리뷰트의 심플함을 대표하는 길고 슬림한 애플리케 인덱스와 도피네 핸즈, 레일웨이 미닛 트랙이 컴플리케이션을 더욱 강조해 줍니다. 12 시 방향의 ‘그랑 데이트’ 디스플레이는 케이스와 다이얼의 직사각형 모양과 어우러지는 핑크 골드 컬러의 프레임으로 돋보입니다. 다이얼 하단의 스몰 세컨즈 카운터 안에는 별이 반짝이는 짙은 블루 컬러의 하늘을 배경으로 문페이즈 디스플레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아하면서도 클래식한 디자인은 케이스를 뒤집었을 때 보게 될 놀라운 광경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합니다.



케이스를 회전하면 별이 빛나는 아름다운 밤하늘에 둘러싸인 노란티엠의 독특하고 흥미로운 시각적 디스플레이가 드러납니다. 다이얼에 8자 모양으로 겹쳐서 배열된 서로 다른 크기의 두 표시창은 케이스 상하단 테두리에 장식된 가드룬과 조화를 이룹니다. 상단의 작은 표시창은 화이트 배경에 세미-점핑 디지털 아워를 표시합니다. 정각 아래의 큰 표시창에는 짙은 블루 컬러로 래커 처리한 3/4 플레이트에 부분적으로 가려진 회전 디스크 위에 시와 분이 표시되고 눈부신 밤하늘을 표현하기 위해 래커 표면에는 작은 핑크 골드 별이 장식되었습니다. 중앙의 작은 원 안에 장식된 폴리싱 처리된 태양과 달이 수평선 위로 지나가며 낮과 밤을 나타냅니다. 수평선 아래의 반원은 선레이 기요세 패턴으로 장식되었으며 하단 표시창 전체는 핑크 골드(18K, 750/1000) 비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기존 노란티엠에서는 핑크 골드로 넓게 펼쳐져 있었던, 인디케이터를 둘러싼 더욱 넓은 표면은 별이 흩뿌려진 여러 겹의 짙은 블루 컬러 에나멜로 장식되어, 눈부신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로 변신했습니다. 위도와 경도선은 수공 레이저로 인그레이빙되어 아래의 핑크 골드 케이스 메탈을 드러냅니다.

기계적 혁신을 통해 재해석된 클래식 컴플리케이션

243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시계의 양쪽 면에 같은 시간을 표시하는 칼리버 826 은 리베르소 트리뷰트 노란티엠 ‘에나멜’을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으며 매뉴팩처에서 자체적으로 개발 및 제작, 조립되었습니다. 2021 년, 상단 다이얼의 제한된 공간에 그랑 데이트 디스플레이를 선보이기 위해 예거 르쿨트르 엔지니어들은 일반적으로 “겹쳐진” 2 개의 디스크가 아닌, 2 개의 작은 디스크(1-9 단위용 1 개, 10, 20, 30 단위용 1 개)가 나란히 놓인 형태로 구성된 완전히 새로운 메커니즘을 개발했습니다. 날짜가 한 자릿수를 지나면 단위 디스크의 작은 고리가 다른 디스크에 걸려 회전하면서 두 자릿수(10 일, 11 일, 12 일 등)를 표시합니다. 이 특허 발명품은 두 숫자의 높이가 다르지 않고 정확히 같은 높이에 표시할 수 있어 미학적으로 완벽함을 더해줍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들은 1930 년대에 일부 칼리버에 디지털 아워 컴플리케이션을 통합했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엔지니어들은 천천히 우아하게 전환이 가능하도록 즉각적인 점핑 메커니즘 대신 세미-점핑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즉각적인 점핑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은 파워 리저브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9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된 리베르소 트리뷰트 노란티엠 '에나멜'의 새로운 재해석은 시대를 초월하는 리베르소의 다채로운 매력뿐만 아니라, 기술적 혁신 및 우수성과 더불어 장인 정신과 독창성을 추구하는 그랑 메종의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합니다.

상세 정보

리베르소 트리뷰트 노란티엠 '에나멜'

케이스: 핑크 골드(18K, 750/1000)

크기: 49.4mm x 29.9mm x 11.72mm

무브먼트: 매뉴얼 와인딩, 칼리버 826

기능: 시, 분, 스몰 세컨즈, 그랑 데이트, 문페이스(앞면), 디지털 세미-점핑 아워, 디스크의 분, 낮/밤 인디케이터(뒷면)

앞면 다이얼: 그레이 선레이 패턴

뒷면 다이얼: 블루 에나멜과 래커

파워 리저브: 42 시간

방수: 3 바(bar)

스트랩: 블랙 엘리게이터 가죽

버클: 교체 가능한 핀 버클

제품 번호: Q71125E1

9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리베르소 소개

1931 년, 예거 르쿨트르는 20 세기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자리매김한 리베르소를 출시했습니다. 격렬한 폴로 경기를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위치는 세련된 아르데코 라인과 독특한 회전형 케이스 디자인으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코닉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90 년 동안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 리베르소는 79 개의 다양한 칼리버를 탑재하고 39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메탈 소재의 다이얼 뒷면은 에나멜링과 인그레이빙 또는 젤스톤으로 장식할 수 있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되었습니다. 리베르소가 출시한 지 90 여 년이 지난 오늘날, 리베르소는 탄생에 영감을 준 모던함의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 왔으며 430 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 여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0 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jaeger-lecoultre.com